현장에세이

인생의 전성기

**현장의가로수밑에서 빗물젖은빵을 먹어보기도 했고, 설계변경을 한다며 여관방에 틀어박혀 몇달을 보낸적도 있었다.
출근 시간7시는있으되퇴근 시간은 없는생활, 그리고 웬놈의 문제는 그리도많이터지는지….
결국발 등의불을 끄다보면 아는 사람이라야 현장주변의사람들뿐이고, 친구도멀어져갔다.**

이은재
(주)건설계약연구원대표

필자는영남건설기술교육원에서건설분쟁및클레임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곤 한다. 얼마 전우연히 강의시간표에서낯익은이름을발견하고는혹시나대학때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쓴 룸메이트가 아닌가 하였는데, 아니나다를까몇주가지난후같은날같은시간대에강의가있어서자연스레해후하게되었다. 기숙사룸메이트로서 1년을 같이살았지만경영학을 전공한 그친구와는 달리 볼일이없어 그냥 세월이 흘러버렸는데이제 공인회계사가 되어 건설업 세무 회계를 강의하고 있었다. 벌써 20여년전의일이니그친구가내얼굴을바로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되었다. 이런 만남의 인연이 즐겁고 신기할 따름이다.

강의를마치고돌아오는길에그친구가대구까지차를태워주어 이런저런이야기를하였다. 필자는4년전부터11년간의건설현장생활을접고건설클레임컨설팅이라는다소미개척분야의업을하고있는데늘부족함을느껴공부를계속하고있으며, 이분야는아직은 미약하지만앞으로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 친구는 한참 이야기를 듣더니“ 지금이 네 전성기일지도 모른다 ”라는 말을 던졌다.

갑작스런그친구의말에속으로적잖은충격을받았다. 그래, 그럴지도몰라. 그렇다면 전성기 란무엇인가? 스포츠선수라면성적이화려한시절로정의하면되는데, 보통사람인내삶에있어서전성기는어떻게정의해야하는것일까? 지금까지의삶에전성기는있었는가? 혹시지나버린것은아닐까? 아니면앞으로전성기를누려야할터인데어떤삶의모습을나의전성기라할것인가? 대구에서 열차를타고돌아오면서필자는끊임없는상념에잠겨야했다.

지난현장생활의뒤를잠시돌아본다. 1990년건설회사에입사하여그시절다그랬듯이현장의가로수밑에서빗물젖은빵을먹어보기도 했고, 설계변경을한다며여관방에틀어박혀몇 달을 보낸적도 있었다. 출근 시간 7시는 있으되 퇴근 시간은 없는 생활, 그리고웬놈의문제는그리도많이터지는지…. 결국 발등의 불을 끄다보면 아는 사람이라야 현장주변의 사람들뿐이고, 친구도멀어져갔다.

우리는인생의전성기를지금현재가아닌지난과거나 앞으로의 미래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전성기가지났다는것은삶이앞으로별로희망이없다는 것이고, 앞으로 도래할 것이라면 지금까지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허전함이 있는 것이다. 필자는 남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에 가장 닮은 시절을 인생의참다운전성기로정의하고싶다. 그렇다면마음먹기에따라 지금이시간이바로내인생의 전성기이고 어쩌면 평생을 전성기로 살아갈 수도있을것이다.

오늘이 시간이나의 전성기라면 이 소중한 시간을어찌함부로쓸수있겠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가족, 과연내가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뇌어보고 그 삶에 좀더 다가갈 수 있도록 좀더 소중하게 시간을보내야겠다는생각이 든다. 바로 오늘 말이다. 얼마 전 타계한 노 시인의 마지막 시가 생각나 되뇌어본다.

오늘도신비의샘인하루를맞는다.

이하루는저강물의한방울이
어느산골짝옹달샘에이어져있고
아득한푸른바다에이어져있듯
과거와미래와현재가하나다.

이렇듯나의오늘은영원속에이어져
바로시방나는그영원을살고있다.

그래서나는죽고나서부터가아니라
오늘서부터영원을살아야하고
영원에합당한삶을살아야한다.

마음이가난한삶을살아야한다.
마음을비운삶을살아야한다.